

불모지 광주에 클래식 씨앗 뿌린다



클래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꾸린 '클래식 패밀리'가 지난 16일 양림동 오웬기념각에서 개최한 '신년음악회' 모습. 모임은 매년 신년음악회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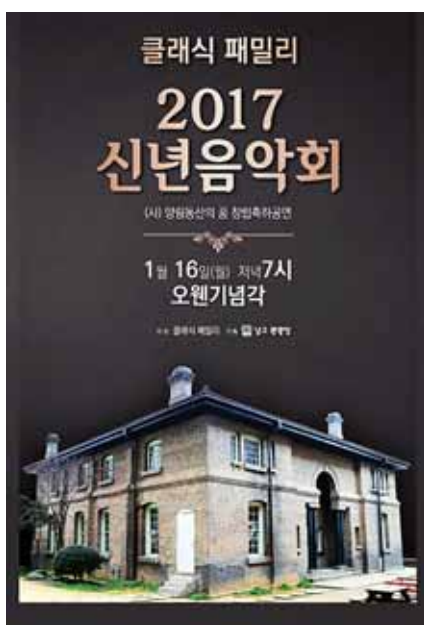
2017 文化로 물들다

7 '클래식 패밀리'

메가박스 공연 감상 하며 결성...티켓 30% 할인 혜택
양림동 오웬 기념각서 올 무료 신년음악회 감동 선사
신년음악회 정례화·연주자-후원인 연결 등 본격 활동

시간이 잠시 멈춘 느낌이었다. 빼그덕거리는 나무 바닥과 오래된 의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나무 천장까지. 그 공간을 가득 채운 건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흥겨운 '왈츠' 음악이었다.
김태현 광주대 교수가 이끄는 아르스필 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이날 슈트라우스의 '박쥐' 서곡, 최성환의 '아리랑 판타지' 등을 들려줬다. 색소폰 연주자 박수홍 호신대 교수, 테너 정주영과 소프라노 정희정의 무대도 이어졌고 박수 갈채와 함께 앙코르 곡들이 연주됐다.
지난 1월 16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오웬기념각에서 열린 '2017 신년음악회' 현장은 소박하면서도 감동적이었다. 공연이 열린 오웬기념각은 1914년 건축된 광주 최초의 근대문화공간이다. 멋진 공간과 멋진 음악이 어우러진 행사인 셈이다.
이날 음악회는 민간 모임 '클래식 패밀리'(회장 윤귀환)가 주최했다. 3년여전 클

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모임이다. 클래식 불모지 광주에서 작은 씨앗을 뿌리는 이들에게.
출발은 메가박스 광주점에서 상영되는 클래식 영상 작품들을 함께 보는 것에서 시작했다. 메가박스에서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 생중계를 시작으로 매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회, 발레 등 다양한 공연물을 상영하고 있지만 관객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극장과 인연이 있던 김양근 전 헌법재판관 등 문화를 사랑하는 지역 어른들이 적은 숫자나마 '함께 모여' 좋은 예술 작품들을 관람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2015년 120여명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클래식 패밀리'를 만들었다.
단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느슨한 형태로 운영된다. 이사장은 김용서(남해종합건설회장)씨가, 회장은 윤귀환씨가 맡고



회원은 120여명 정도다. 회원들은 1년에 6~7회 메가박스에서 함께 오페라 등 공연 작품을 감상하고 지역에서 개최되는 클래식 음악회 등도 함께 관람했다.
지난해 가을에는 처음으로 음악회도 직접 개최했다. 전국 투어 일정이 잡힌 재즈 피아니스트 레미 파노시앙의 광주 공연이 없었던 데 아쉬움을 느낀 박수홍 교수의 제안으로 연주회를 개최했고 150석 규모의 광주아트홀이 만석을 기록했다.
올해는 예산을 들여 오웬기념각에서 신년음악회를 열었다. 남구 관공정이 기획을 맡아 연주자들을 초청했고, 참가자들은 그리 많지 않은 개런티에 흔쾌히 참여했다. 음악회는 무료로 진행돼 공연장을 찾은 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줬다.
신년 음악회를 마치고 최근 정기 모임을

가진 '클래식 패밀리'는 올해부터 모임을 활성화 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신년음악회'는 상설화시키기로 했다. 장소는 오웬기념각이다. 지역에 근사한 '신년음악회' 브랜드 공연이 생긴 셈이다.
또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 연주자들과 후원인들을 연결하는 만남도 2월 중 진행된다.
지역에서 열리는 클래식 공연과 메가박스 클래식 공연 감상도 꾸준히 이어간다. 모임에서는 1년에 6~7회는 100석 규모의 메가박스 관 전체를 대관, 회원들을 초대해 공연을 함께 보고 있다. 대관을 하지 않는 날에는 극장과 연계해 티켓을 30%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메가박스에서는 구노의 '파우스트', 바그너의 '마탄의 사수' 등을 상영했고 올해도 베르디의 '가면 무도회', '오텔로', '발퀴레', '탄호이저' 등의 작품이 대가중이다. 그밖에 지역에서 열리는 의미 있는 음악회에 함께 참여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광주가 예향이라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클래식 문화 환경은 척박해요. 앞으로 더 좋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좋은 작품도 많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임은 특별한 회칙이나 회비도 없어요. 음악회, 그 중에서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윤귀환 회장)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박성정 남구 관공정장은 "올해는 조직을 정비해 모임을 탄탄히 할 계획"이라며 "클래식을 사랑하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10-3605-62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화가 이태희 개인전 3~14일 갤러리 리체



▶'원천'

켜켜이 쌓인 나무껍질이 캔버스 위에서 산수화로 다시 태어난다. 공중을 부유하는 산들은 풍화적 색채를 만나 초현실적 이상향을 표현하고 있다.
한국화가 이태희씨가 3~14일 갤러리 리체에서 개인전 '겹'을 연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 리체가 운영하고 있는 제2회 청년 작가 공모전이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실제 나무 조각, 껍질을 특수 한지에 탁본하듯 표현한 프르타주(Frottage) 기법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원천' 시리즈는 화폭으로 옮긴 나무 단면을 겹겹이 쌓아 색채와 형태를

편혜영 '재와 빨강' 폴란드 온라인 커뮤니티 '올해의 책'

이상문학상과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한 편혜영 작가의 소설 '재와 빨강'이 폴란드 문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16 올해의 책'에 선정됐다.
편 작가의 판권을 담당하는 KL메니저먼트는 편 작가의 '재와 빨강'이 성인 도서 부문 '올해의 책'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올해의 책은 번역서를 포함해 폴란드에서 한 해 동안 출간된 전체 도서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성인 도서와 아동 도서 부문에서 1개 작품을 뽑는다. 성인 도서 부문에서 한국 작가 책이 선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동도서 부문에서는 지난 2012년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이 선정된 바 있다.
심사위원들은 재와 빨강에 대해 "부조



리한 삶을 형상화한 카피와 카프카의 문체를 연상케 하는 작품으로 2016년 출간된 책 가운데 가장 흥미롭다"고 평했다.
2010년 국내에서 출간된 '재와 빨강'은 전염병과 싸우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편 작가 특유의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이 서늘한 문체와 잘 어우러져 소통 부재의 현실을 실감나게 그렸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아프리카 쇼나조각

아프리카 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대학 뒤 관공정인 18)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향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